

##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발전 과정 탐색<sup>1)</sup>

김 선 희(목포대학교 전임강사)\*

권 민 정(중앙대학교 전임연구원)\*\*

---

### 《 요 약 》

---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업과 관련한 문헌 및 정책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인 2개 학교의 실태를 일부 조사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 향후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재조명과 향후 초·중·고등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청소년 스포츠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학교스포츠클럽,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창의경영학교, 스포츠문화, 학교체육활성화

---

---

1)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NRF-2011-413-017), 대한체육회(2011)에서 개최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dokwon@naver.com

## I. 서론

최근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가장 큰 우려를 낳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이다.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들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사회,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 현장에 널리 만연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 문화를 바로 잡자 학교폭력 근절 대책까지 마련하여 대정부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확대이며, 이를 위해 체육수업 시수를 늘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최근 ‘2010년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최인재, 2011), “최근 일주일동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에 대한 질문에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9%, 주 2일 이하는 57.3%에 이르고 있고, 신체활동 일수가 주 2일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훨씬 높았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운동 부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메디컬투데이, 2011.7.22.), 초·중·고등학교의 비만율은 2006년 11.62%에서 2010년 14.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한 ‘2010년 상담경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연합뉴스, 2011.8.22.)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지난 2007년(8%)에 비해 2010년에는 1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수준 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2011).

이처럼 청소년들의 건강 및 운동 부족, 정서적 불안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정부에서 지난 2007년에는 학생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1학생 1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 및 운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학교스포츠클럽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입시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 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교육인적자원부, 2007b)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각급 학교 내에 결성되었고, 조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착수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은 각급 학교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학교 내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여가 활동 및 건강 도모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은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어 왔던 계발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활동,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합하여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첫 해인 2007년 8.1%였던 등록률이 2009년 27.4%, 2011년 45%(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2b, 이하 교과부와 문광부)에 이르는 등 눈에 띄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 이면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시간 제약, 형식적인 등록, 학교체육시설 부족, 학부모 및 교사 인식 부족 등(김경숙 등, 2009) 학교스포츠클럽 안팎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을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체덕지)+ 새로운 도전과 발상(창의)+배려와 나눔(공동체 참여)을 실천하는 인간상’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대한체육회, 2011a) 중·고등학교에서 총 30개교를 선정하였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50개교로 확대되었다.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이 기존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가장 먼저 학교스포츠클럽에 당면한 문제를 보완하고,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모델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측면에서도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교과부, 2012a)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실천 사례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스포츠 활동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인지적 기능, 긍정적인 자기 인식, 낮은 좌절감, 향상된 사회 기술,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Weiss & Wiese-Bjornstal, 2009), 신체적 자긍심을 높여주며(이제행, 김현식, 2006), 자기 표현력 향상과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김영미, 2005; 이진갑, 2002)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 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 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확산과 내실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사례(임성철, 2012; 매일경제, 2012.4.22.)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의 당면 문제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이 새로운 학교스포츠클럽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학문적 토대 마련,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화 및 향후 도약을 위해 마련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정착 및 확산, 교육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발전 과정을 탐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문헌자료(연구 보고서, 정부 정책 문서 등)를 수집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와의 비공식적인 면담과 연구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비공식적 면담을 실시한 2개교는 연구자와의 오랜 친분 관계로 접근이 용이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면담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내용을 기록하거나 필요시 일부는 녹음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내용 분석과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모델의 성공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이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춘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가치의 내면화를 실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Ⅱ. 학교스포츠클럽의 현황 및 문제점

### 1. 학교스포츠클럽의 현황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사례 탐색은 김경숙 등(2009)의 연구에서도 소개되었듯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2개교의 체육교사와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현장 경험과 내용 분석 방법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김경숙 등(2009)의 연구가 행해진 이후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 가. A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A 중학교는 축구(2개), 농구, 배드민턴, 배구, 볼링, 인라인 롤러, 스케이팅의 8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A 중학교는 기존의 계발활동의 대부분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으로의 연계는 계발활동이 간헐적 활동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정기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내에서 활동하는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종목 뿐 아니라 교외에서 활동하는 볼링, 인라인 롤러, 스케이팅 종목도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결성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서 A 중학교는 계발활동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운영의 기본 방향

A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기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평생체육의 기반 마련이다. 현재 축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배구, 인라인 롤러, 스케이팅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은 평생 체육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 경험을 확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둘째, 자신감 및 사회성 함양이다. 운동 기능의 습득만을 위한 클럽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경기 기능 습득 및 실제 경기 참여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클럽 회원 간의 교류 경험으로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 3) 운영 프로그램 및 과정

A 중학교는 교내의 체육교사 4명과 일반교사 1명, 그리고 외부 강사 2명이 스포츠클럽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교사는 축구(2개 클럽), 농구, 배구, 배드민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교사는 볼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외에서 활동하는 인라인 롤러와 스케이팅은 외부 강사가 담당하여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고 있다. 종목별 운영 프로그램은 모두 담당 지도교사가 대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지만 지도 위주의 클럽 활동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제안 및 수정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한다. 주로 종목별 리그 경기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경기 경험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미와 경기 방식의 완전 습득을 중요시 여긴다.

### 4) 운영상 애로사항

A 중학교의 8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정기적인 참여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방과후에는 운동부(축구)가 매일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우천 시에는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클럽이 방과후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종목별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인 교내 대회, 지구별 대회 및 소속 교육청 대회, 교육감 대회 등 규모가 큰 대회로의 참가 기회가 증가될수록 학생 인솔을 위한 지도교사의 출장, 그리고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솔교사의 출장은 주로 체육교사가 담당하는데 운동부(축구)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교사 외의 체육교사가 대회의 참가를 위한 출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로 인식된다. 또한 대회 참가 실적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 다소 편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려움이다. 배구 클럽의 경우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으로 인해 교육청 지원 예산 약 11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다른 클럽은 연간 50만원 이하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A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체육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나. B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B 중학교는 축구, 탁구, 댄스, 줄넘기의 4개 종목을 스포츠클럽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B 중학교는 학교 중점사업 중 하나인 방과후 수업의 활성화 방침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과후 수업의 개설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사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스포츠클럽으로 연계 가능한 종목이 나올 경우 방과후 수업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추후 지도교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연계 운영한다. B 중학교는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혜택을 받았고, 지하에 다목적 강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외적 환경은 잘 갖추어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B 중학교는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의 진학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의 부족한 신체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방과후 수업을 토대로 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목적이다.

##### 2) 운영의 기본 방향

B 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 탁구, 댄스, 줄넘기 클럽은 모두 방과후 수업으로 우선 개설된 종목이다. 즉 B 중학교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경험 한 후 클럽으로의 연계를 시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이는 방과후 수업을 통해

체육교사나 외부 강사 등 담당 지도교사가 계획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을 우선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 3) 운영 프로그램 및 과정

B 중학교는 교내의 체육교사 2명과 운동부(축구) 코치 1명, 그리고 외부 강사 1명이 방과후 수업 및 스포츠클럽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교사 2명은 탁구반과 줄넘기반, 운동부(축구) 코치는 축구반, 외부 강사 1명은 댄스반을 담당하며, 주 1회 또는 2회 방과후 수업을 한 후 추가적으로 주 1회 이상 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종목은 축구로 주말에 자체 리그전을 실시하거나 축구부(운동부) 대회 출전 시 경기장에서 참관을 하는 등 방과후 수업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 또한 운동부(축구) 코치가 직접 계획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운동 기능을 습득하고, 경기 기능까지 학습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탁구반과 댄스반은 주로 주 1회의 방과후 수업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줄넘기반은 지역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즈음에 대회 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4) 운영상 애로사항

B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은 방과후 수업을 토대로 연계 및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도교사의 열의와 학생들의 클럽 운영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아 운영 취지만큼 클럽으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B 중학교의 지원 예산은 학교스포츠클럽 전체에 79만 2천원이며, 주로 대회 참가 및 클럽 활동을 위한 용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이 예산의 대부분은 줄넘기반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에 사용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편중이 문제되고 있다. 그 외 지원 예산은 방과후 수업의 예산이며, 실제 학생의 클럽 활동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닌 지도교사의 강사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클럽별 지원 예산 규모와 예산 집행 세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은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비공식 면담 결과와 연구자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세미나(워크숍)의 참석을 통해 분석한 내용,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문헌 자료 등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에 대한 혼란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관련 정책 및 실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높아졌다. 특히 교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던 동아리, 방과후 활동 등의 학생 스포츠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아우르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와 소속 교육지원청에 클럽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발표된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성과 발표(교과부, 문광부, 2012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 양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내실화 측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기존의 스포츠 관련 동아리, 방과후 수업, 특기·적성 활동, 계발활동 등의 클럽 등록은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실행되어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최근 교과부(2012b)에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필수 이수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한 예로 볼 수 있다. 즉 다양하고 급진적인 정책 시행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하고, 실제 학생 참여율과 참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클럽 등록을 형식적인 등록이라고 비판하게 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의 본질과 개념 정립 및 이해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이 진정한 클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 정립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나. 예산 지원의 편중<sup>2)</sup>

최근 교과부와 문광부(2012b)가 제시한 학교스포츠클럽 사업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5,976백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2012년에는 교과부에서 1,640백만 원, 시·도 교육청에서 9,950백만 원, 문광부(공익사업적립금)에서 600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에만 총 12,190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표 1).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기간(2007년~2011년)동안 교과부가 연간 20억씩 총 100억을 지원한 것을 끝으로 예산 지원의 주체가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예산 지원 주체의 변화는 시·도 교육청 주도의 양적 확대 및 내실화 도모를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지원 주체의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체감은 지원

2) 교과부, 문광부(2012b)의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규모의 축소와 일시적 또는 특정 학교로의 편중된 지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률이 시·도 교육청 평가의 기준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 대해 차등적으로 추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도 교육청의 등록률 향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학교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클럽 등록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표 1〉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09~'12)

연도	사업예산(백만원)			
	교과부 (특교)	시·도교육청 (교특)	문화부 (공익사업적립금)	합계
'09	2,500	5,817	—	8,317
'10	2,795	4,724	—	7,519
'11	2,500	5,000	450	7,950
'12	1,640	9,950	600	12,190
증감 ( '12~'09)	-860	+4,133	+150 ( '12~'11)	+3,873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 시·도 교육청 차원의 관리로 주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편중이 특정 지역·학교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場)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제적인 대내·외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실적 평가로 인한 예산 지원의 편중, 일시적·단기적 지원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다양한 즐거움 체험을 통한 전인교육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다. 실제 클럽 활동 시간 부족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관심 종목별로 모두 함께 모여 연습함으로써 개인 신체활동량 증가와 사회성 함양 등의 통합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반 학생의 스포츠 교육의 장(場)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클럽 활동을 위해 연습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기술능력 향상이나 대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주로 학교나 학원 수업 등의 시간을 피한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 등을 이용해 활동해야 한다(허현미, 김선희, 2008; 김선희, 2012). 일명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클럽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라 해도 정기고사 즈음에는 틈새 시간마저도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 횟수와 대회 종목 수를 증가시켜 클럽 참여 기회(시간) 또한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단순한 대회 개최 횟수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토너먼트 경기 방식에서 학교별·교육지원청별 리그 경기 후 토너먼트 진행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1회성의 대회 참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교과부, 문광부, 2012b). 또한 최근 교과부(2012a)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중학생이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수업 시간+클럽 활동 시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스포츠클럽의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2년 2월, 각 중학교에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의 클럽 활동 시간 부족과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내실화 도모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관련 정책의 발표와 시행 요구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이 또한 실제 클럽 활동 시간의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제 클럽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내실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 라. 클럽 활동의 입시 반영 실효성에 대한 의문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노력은 정책적 추진 방안 마련 및 이의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의 형태로 학교 현장에 전달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문광부는 2010년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2011학년도부터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2011년)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로 기록되었으나 그 과정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개념과 운영 방식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필요성과 입시 반영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제 등록률이 교과부의 발표 결과에 비해 낮다고 여기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의 실제 운영 또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실정인으로서 학생들의 클럽 소속 기준 마련과 실제 활동 정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생활기록부 기록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입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직 소수의 대학만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경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역의 입시 반영에 대한 실효성 찾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활동이 입시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대학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Ⅲ. 대안: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 1. 토대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시범사업(2007년~2011년)

교육인적자원부(2007a, 이하 교육부)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체격은 향상되었으나 체력·체질·생활습관은 계속 악화되고 인터넷 중독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증가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건강 위협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여기고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안)2007~2011년』의 성과 지표 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포함시켰다. 그 후 3개월 만에 확정·발표한 2007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학교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기간으로 하여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교육청에 등록·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향후 5개년 간 클럽의 등록률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교내 대회부터 지역 교육청·지구별 대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 대회로 확대하되 2008년부터는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를 자발적으로 시·도에서 분산 개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체(중앙협의체, 시·도 협의체, 시·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 시설·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시범사업 기간(5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 학생의 신체활동량에 비해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의 훈련량이 지나치게 많아 그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즉 수업결손, 폭력 등과 같은 학교 운동부의 비정상적 운영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교육부(2007b)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07년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건 조성 및 등록 확대를 해당년도 중점 사업 추진 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실적을 시·도 교육청별 평가 항목으로 설정

하여 사업 예산 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교스포츠클럽의 홍보 및 우수 운영 사례 발굴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역할 강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학교스포츠클럽은 시범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주말리그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학교를 지역스포츠클럽의 거점으로 활용, 스포츠자원봉사 제도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누적관리 시스템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기록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반영, 기숙형 고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종합형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등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2012년 4월 현재, 전년도 클럽 등록률은 45%로 당초 목표(30%)를 조기에 달성했고,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종목이 32개로 확대(주명현, 2012)되는 등 여전히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와 정착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스포츠클럽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모델 개발과 확산: 창의경영학교 운영(2011년~현재)<sup>3)</sup>

학교스포츠클럽의 시범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교과부(2011a)는 보다 발전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의 내실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선도적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체육 중점과정/학교체육 활성화)의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2011a)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3년간 창의경영학교 지원기관으로서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창의경영학교 및 체육 중점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한체육회의 지원 내용은 연구학교·자율학교의 지정 요청, 학교스포츠클럽 강습 및 스포츠리그 운영 인력 지원, 종목별 스포츠 활동 지도자료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물품 지원,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 사용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자율권 확대 등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경영학교 대표교육청)과 지원 사업 관련 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체육회(2012)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형 창의경영학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학교스포츠클럽의 선도적 모델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창의경영학교의 유형은 수업개선 영역의 학교체육활성화 중점학교 50개교(초10, 중20, 고20)이다. 이 학교들로는 2011년에 선정된 30개교(2012년 1개교 제외)와 2012년에 추가 선정된 21개교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

3) 대한체육회(2011a)의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계획'과 대한체육회(2012)의 '제4차 체육교육 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토대로 요약·정리하였음.



에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받는다. 특히 현재의 학교체육 실태와 여건상 종목별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의 개설 및 강습, 스포츠 리그 운영 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 연계 등을 통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선도 모델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50개교에는 1교당 평균 지원액을 약 4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한 연도와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교과부(2011a)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혁신형(학교체육활성화) 창의경영학교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모델 개발과 확산(일반화)을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모델 개발 및 확산과 더불어 일반화를 위한 단위학교별 특색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함으로써 추후 재정적 자생력을 동반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IV. 발전: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

### 1. 비전의 구체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인성 함양을 위한 주된 활동으로 정착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지향해야 할 실천 철학, 즉 모두가 공유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 비전이 정립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은 추진 배경, 방향, 목적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청소년 스포츠문화를 주도해 나갈 주도적 활동으로 강력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비전 정립(실천 철학 정립)의 필요성은 김선희, 허현미(2008)와 김경숙 외(2009)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이며, 이제 그러한 비전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숙 외(2009)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노는 활동이며, 학생들의 공부할 시간을 뺏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녀들이 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엘리트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그 목적이 뚜렷하고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반면, 학교스

스포츠클럽은 과연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고, 교육적 실천 방법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도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스포츠클럽은 기능중심 또는 놀이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희(2010)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에서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비전으로 전인적 청소년스포츠를 제시하였다. 전인적 청소년스포츠는 스포츠 기술과 생활 기술 습득을 통해 스포츠의 내·외적 가치를 습득하고 체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성, 체성, 감성, 덕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스포츠교육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대책(교과부, 2012a)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육활동 확대 방안이 의도하는 청소년 인성 함양이라는 교육적 의도를 충족시키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지향해 나가야 할 비전 중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의 양적·질적 활성화 방안들이 현장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감에 따라 '전인적 청소년스포츠'라는 비전 또한 그 내용과 지원 시스템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야 할 시점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목적이다.

## 2.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은 기본적으로 체육수업과 연계한 클럽, 건강증진, 인성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 스포츠 교육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 추진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주당 4시간: 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시키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정과 체육수업 외의 활동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했던 방향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해 교과부(2011b)가 발표한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권장'하던 것에서 총 136시간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을 정과 체육수업과 연계하거나 또는 정과 체육수업 내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건강·인성·창의성 함양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추진한 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육교과와의 연계가 외적으로 현실성이 높아야 하며, 내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희, 허현미(2008)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방안 중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운동 시간, 경기 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내실화 추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의경영학교의 경우 지난해 선정된 학교 모두 단위학교별 학교스포

츠클럽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 운영 방향으로 삼고 있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다양화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일반 학교의 경우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의 중요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실제 활동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프로그램 운영 목적의 다양화는 현실성 저하로 무시되어왔다. 이제 학교스포츠클럽 개선을 통한 체육수업 시수 확대 방안이 발표된 만큼 확대된 수업 시수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수립과 그에 따른 지도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부터 시행하는 총 136시간의 학교스포츠클럽 이수를 위한 수업 시수 확보 방안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운영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 감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순증을 통한 수업 시수 확보로 체육수업 내용과의 직접적·간접적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독립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확대를 토대로 그 취지를 고려한 건강활동 중심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체육 수업 중 ‘건강활동’ 가치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클럽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의 대회 종목 확대와 리그 경기 활성화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통해 경쟁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체육수업의 ‘경쟁활동’ 가치 영역과 연계하는 교육, 학생들의 자발적인 클럽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이 내·외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 또한 변화의 유형과 내용에 맞는 운영 목적과 그에 따른 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정과 체육수업과 더불어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원 시스템의 현실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은 앞으로 학교의 중·장기 비전, 학생·학부모의 수요, 학교의 물적·인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현재 교과부의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체육회(생활체육회, 경기단체), 학교 자체 예산, 기타(프로구단 등) 기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창의경영학교와 같은 중점 지원 대상 학교 외의 일반 학교는 대부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2012)는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모델인 창의경영학교의 특색사업 및 발전방안 고려 사항으로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지원금 없이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학교 자체 예산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창의경영학교 육성을 위한 대한체육회와 교과부의 외부 지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유지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기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김경숙 외(2009)의 연구 보고에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광부 체육국의 국고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 지원금, 지자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범사업으로 교과부 주체의 예산 지원이 시·도 교육청 주체의 예산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의 예산 지원은 지방비 부담(국민체육진흥기금 5:지방비 5 부담 원칙/ 5:5 확보가 어려울 경우 7:3 가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마련한 지방비를 학교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도록 교과부 및 교육(지원)청에서 협조 요청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프로스포츠구단(배구, 농구, 야구) 및 각 기업체에서 청소년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매칭 펀드 형식으로 부산 아이파크(I'park)와 KTF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아이파크와 한국맥도날드 등과 '방과후 축구교실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연합뉴스, 2010.3.22.). 부산지역의 축구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 선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한국 맥도날드는 물품 및 운영비용을, 부산아이파크 구단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평가 항목에 후원단체/기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안들은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창구를 다양하게 열어둠으로써 클럽 소속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4. 지도 인력의 전문화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사 개인의 열의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스포츠클럽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양성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학교스포츠클럽 개설과 체육수업 시수 확대 방안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교사로는 체육교사 및 스포츠 강사 외에 일반 교과 교사도 지도 가능하며, 체육 재능 뱅크, 명예체육교사,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 분야를 통해 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정과 체육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및 체육수업 시수 확대에 의한 지도 인력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지 모르나 지도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교육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의 지원 방안과 그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과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전공 연계 자원봉사제 운영이다. 2009학년도부터 사범대학 및 비사대 교직 이수 과목에 교육봉사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예비체육교사들에게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와의 협력을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봉사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예비지도자로서 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상호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내 동아리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제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화여대 체육과학과 스포츠교육학 연구실에서는 2006년부터 초등학교 주말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봉사 동아리를 결성하여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보였다. 이밖에 대학 내 사회봉사학점과 연계할 수 있다. 목포대학교의 경우 사회봉사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1학년 학생들 모두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다른 대학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임).

둘째, 지역 내 스포츠 자원봉사 및 스포츠클럽 자원 활용이다. 주말 리그경기 운영에서 지적된 경기운영 요원 및 심판의 부족 문제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학부모와 동호회 회원들, 종목별 심판 자격을 지닌 초보 심판들의 스포츠 자원봉사, 각 종목별 생활체육회나 스포츠클럽, 민간 스포츠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도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회 회원이나 엘리트선수 출신 사회인들에게 스포츠클럽 경기 심판이나 운영 요원 등의 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아마추어 수준의 초급 경기에서부터 전문 선수 수준의 고급 경기까지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준 높은 실력을 쌓은 자원봉사자나 스포츠클럽 참여자들이 전문 심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면, 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로써 엘리트 스포츠의 폐쇄성,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의 비전문성이 상호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 및 지도자 코칭 프로그램 운영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재미와 즐거움, 가치와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의 장(場)이 되어야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기능과 경쟁이 몸에 밴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청소년스포츠의 실천 가치와 코치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해 보고 싶은 교사들에게 스포츠클럽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코치의 역할과 자질, 스포츠 지도에 대한 기초 지식의 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스포츠 교육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닌 청소년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의 실천 능력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나 경기 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청소년스포츠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스포츠자원봉사자 교육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코칭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스포츠를 교육하는 지도자는 스포츠 기능과 스포츠 문화를 동시에 전달하는 전도자며, 청소년들을 지혜롭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김선희, 2010).

##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에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발전 과정 탐색을 목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및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모델 개발을 위한 토대와 모델 개발 및 확산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비전의 구체화,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지원 시스템의 현실화, 지도 인력의 전문화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각 학교 급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드러났지만 이러한 노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보다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으로부터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내실화 방안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을 배경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은 실천 가치를 바로 세워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2012년 현재 50개 창의경영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개별 학교의 단기적 사업만이 아닌 학교스포츠클럽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 내며, 향후에는 청소년 스포츠 교육의 표준 모델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한체육회'를 전담지원 기관으로 지정한 만큼 현재의 지도자 연수, 스포츠강습 프로그램, 리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질적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밖의 체육 전문 단체가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전문 인력의 활용 및 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보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끝으로 이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학교 정책이 아닌 학교 안에서 시작된 청소년 스포츠 교육의 제도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학교 안팎의 스포츠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전된다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강요하는 학교가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강조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리고 미래에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인 교육에 일조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창의경영학교(학교체육 활성화) 운영 관련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7월).
- 교육과학기술부(2011b). **학교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자료(4월).
- 교육과학기술부(2012a).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월).
- 교육과학기술부(2012b).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월).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0).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자료(9월).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1월).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2b). **2012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월).
- 교육인적자원부(2007a).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4월).
- 교육인적자원부(2007b).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자료(7월).
- 김경숙, 여지은, 김선희, 김도연(2009).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보고서.
- 김선희(2010). **청소년 스포츠와 코치 교육: 반성과 대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희(2012).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학생체육 활성화 방안**. 2012 학교체육진흥세미나 자료집, 21-40.
- 김선희, 허현미(2008).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 347-364.
- 김영미(2005). 아동의 운동참가와 인터넷 중독 및 친구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4(4), 205-216.
- 대한체육회(2011a).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계획(안)**.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
- 대한체육회(2011b).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자료집**.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2). **제4차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2월).
- 이슬기(메디컬투데이, 2011.7.22.). 입시위주의 교육, 중·고교 학생 체력저하 '심각'. 자료출처(검색일 2012.3.21.): <http://www.mdtoday.co.kr/mdtoday/mdAllView.html?no=161338&word>
- 이제형, 김현식(2006). 청소년의 스포츠참여와 신체적 자긍심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2), 159-166.
- 이진갑(2002).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참가유형과 정도에 따른 자기표현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1(3), 147-158.



- 이한나(매일경제, 2012.4.22.). 축구재미에 빠져 학교폭력 몰라요. 자료출처(검색일 2012.4.2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45631>
- 임미나(연합뉴스, 2011.8.22.).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늘었다. 자료출처(검색일 2012.4.1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
- 임성철(스포츠동지, 2012.3.12.). 학교 체육활동에서 학교 폭력의 실마리를 찾다. 자료출처(검색일 2012.4.12.): <http://www.sportnest.kr/1309>
- 조정호(연합뉴스, 2010.3.21.). 맥도날드 부산 방과후 학교 축구교실 운영. 자료출처(검색일 2012.2.10.):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100321001800038](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100321001800038)
- 주명현(201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체육 추진환경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2012 학교체육 진흥세미나 자료집**, 101-119.
- 최인재(201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 허현미, 김선희(200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개선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7(5), 119-132.

Weiss, M. R. & Wiese-Bjornstal, D. M. (2009).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Physical Activity. *Research Digest*, 10(3), 1-7.

· 논문접수: 2012-05-01/ 수정본 접수: 2012-06-15/ 게재승인: 2012-06-18

## ABSTRACT

### Exploration of Development Process from School Sports Club into Korean style School Sports Club

Sun-Hee Kim

(Full-Time Lecturer, Mokpo University)

Min-Jung Kwon

(Association Researcher, Chung-Ang University)

In recent times, the public interest is being focused on school sports club as one of the pla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youth sports activities and eradicati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Hereby,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and documents related to operating projects of diverse school sports club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thereby intended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a school sports club by examining some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two schools which are currently operating a school sports club. Through such a process, this study is,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chool sports club, aimed at preparing the around needed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spread of a Korean style school sports club, and action plan for its future developments. It is hoped that such a research result will be a basic study contributing to shedding new light on the role of the Korean style school sports club, and revitalization of sports activities of the future elementary,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sound youth sports culture.

Key Words : school sports club, Korean style school sports club, creative management schools, sports culture, revitaliz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